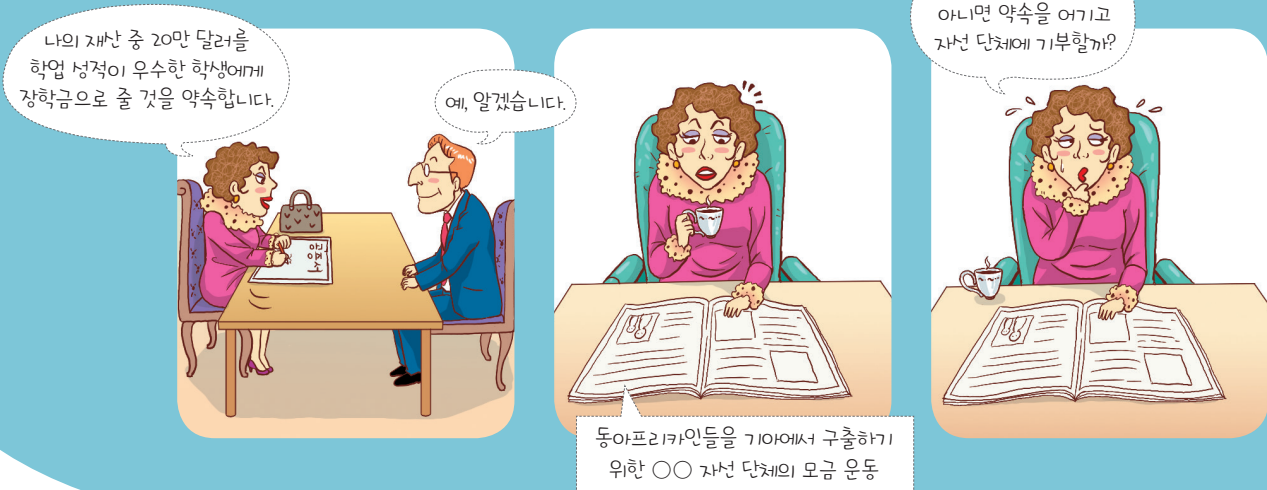


# 6 옳고 그름의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생활 속 주제 열기

여러분이 위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이유는?

2024

.....

.....

.....

우리는 도덕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을 종종 마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옳다고 생각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일까요?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단원에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선의지에서 비롯된 도덕적 의무를 제시하는 칸트주의와 행위의 결과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공리주의에 대하여 탐구해 봅니다. 또한 이 두 사상이 현대에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지도 살펴봅니다.

# 01 의무론과 칸트주의

- 의무론의 특징 및 칸트 윤리 사상의 장점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 현대 칸트주의의 특징과 현대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의무론과 칸트 윤리 사상

우리는 수많은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와 같은 의무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을 의무론이라고 한다.

- 5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 어떤 행위에 있어 산출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행위의 동기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옳은 것이 된다.

또한 의무론은 행위의 가치가 본래 정해져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행위는 본래 옳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본래 그르다고 주장한다.

- 10 그리고 의무론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은 것이므로,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무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칸트이다. 칸트는 자연에는 자연법칙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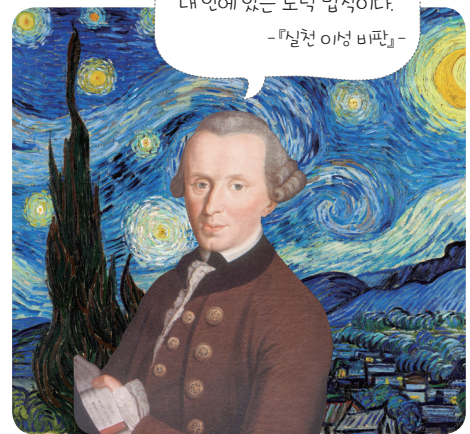
- 15 도덕 법칙은 우리 안의 실천 이성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실천 이성이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극복하고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명령을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는 인간을 자율적 존재라고 보았다. 그리고 칸트는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은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20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

선의지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으로,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이다. 즉 어떤 것이 의무, 즉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마땅히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선의지이다.

내가 그것들을 더욱 자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항상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실천 이성 비판』-



○ 칸트(Kant, I., 1724~1804)

칸트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한 상인이 마땅히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정하게 판매한다면, 이 상인의 행위는 도덕적이다. 하지만 이 상인의 행위가 사람들로 부터 신용을 얻어 장기적으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욕구에서 비롯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5



**질문**

Q 칸트는 왜 정언 명령만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나요?

A 칸트는 정언 명령을 가언 명령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가언 명령이란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을 말합니다. 그 목적에는 건강, 부, 명예, 행복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칸트는 도덕의 원리가 가언 명령으로 되어 있다면, 도덕은 욕구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명령인 정언 명령만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조건 X 무조건 ○○하라.  
정언 명령

가언 명령  
조건 ○ △△하고 싶으면 ○○하라.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명령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 욕구를 지녔기 때문에 선의지를 저절로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도덕 법칙을 정언 명령의 정식으로 제시하였다. 정언 명령은 ‘무조건 ○○하라.’와 같은 절대적인 명령의 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정언 명령의 핵심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다. 10

나는 과연 거짓 약속이 의무에 맞는가 어떤가 하는 이 과제에 대한 답을 아주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속임수 없이 제시하기 위해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나는 (진실하지 못한 약속을 통해 곤경에서 벗어난다는) 나의 준칙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보편적 법칙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것에 정말로 만족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든 그가 거기에서 다른 방도로는 벗어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면 진실하지 못한 약속을 할 수도 있다고 정말로 나에게 말할 수 있는가?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15

**I 준칙**

각 개인이 나름대로 정립한 행위의 규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매일 일찍 일어난다.’라는 준칙을 따른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면 모든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행위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이는 자신을 위한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칸트는 도덕 법칙으로서 정언 명령을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와 같은 정식(定式)으로 제시하였다. 20

또한 칸트에 따르면 욕구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수립하여 이를 따르려는 인간의 의지는 고귀하며, 이러한 의지의 자율성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 모든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인간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칸트는 정언 명령을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것은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이다.



10 인간이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고 도덕 법칙에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칸트의 윤리 사상은 도덕을 인간다움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게 함으로써 도덕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칸트의 윤리 사상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나 인간 존엄성을 도덕적 의무의 핵심에 놓음으로써 우리의 일상적인 도덕의식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15 하지만 칸트 윤리 사상은 도덕 법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의무에 따른 행위만을 도덕적 행위로 인정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정언 명령은 단지 형식일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도덕적 의무가 상충할 경우에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제공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2024

**탐구와 성찰** 칸트 윤리 사상의 비판적 평가 » 사상의 관점 성찰하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어떤 죄 없는 Y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려는 갱들에게 쫓겨 당신에게 숨겨 달라고 빌면서 당신 집의 문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라. 당신은 그를 들어오게 해서 3층 다락방에 숨겨 준다. 잠시 후에 갱들이 도착해 “Y가 당신 집 안에 있지?” 하고 말하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추궁한다. 당신은 어떻게 말해야만 하는가?  
- 루이스 포이만·제임스 피저, 『윤리학』 -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칸트라면 어떻게 말할지 예상해 보고, 그 대답을 평가해 보자.

창의  
의심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그 이유와 함께 써 보자.

### 현대 칸트주의



○ 로스(Ross, W. D., 1877~1971)

서양 윤리 사상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칸트의 윤리 사상은 현대로도 이어졌다. 그리하여 칸트 윤리 사상의 원리를 계승하면서도 그 사상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현대 칸트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로스이다. 그는 칸트 윤리 사상의 핵심인 의무론을 계승하면서도 한계로 지적되는 정언 명령의 엄격성, 도덕적 의무 간의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조건부 의무(prima facie duty)를 제시하였다.

조건부 의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의무와 달리 한번 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옳고 명백한 의무로 ‘직견(直見)적 의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는 것, 호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등과 같은 의무들이 여기에 속한다.

조건부 의무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칸트의 정언 명령보다는 느슨하게 적용된다. 만약 조건부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의무도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따라 유보된다.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면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될 경우,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는 의무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의무에 의해 미루어진다.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대 칸트주의는 도덕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칸트 윤리 사상을 계승한 현대 칸트주의는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의무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불확실성과 유연성에 흔들리지 않는 옳고 그름의 확실한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현대 칸트주의는 인권 사상 및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현대 칸트주의는 칸트 윤리 사상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율성과 인격에 대한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인권 사상의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로  
확인

- ① 칸트는 선의지에 의한 행위도 불행을 낳게 되면 비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 (O, X)
- ② 칸트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도 도덕 법칙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O, X)
- ③ 로스는 상황에 적합한 조건부 의무를 도덕적 직관으로 알 수 있다고 보았다. .... (O, X)

## 02 결과론과 공리주의

- 학습 목표 결과론의 특징 및 고전적 공리주의의 장점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 현대 공리주의의 특징과 현대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결과론과 고전적 공리주의

우리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하기도 한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의존하며, 올바른 행위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결과론이라고 한다.

결과론은 행위의 가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도덕적 문제 상황은 다양하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론은 행위의 가치는 각 상황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결과론은 좋은 결과의 산출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는 수단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다면,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결과론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경험론을 계승한 공리주의를 들 수 있다. 공리주의를 체계화한 벤담과 그의 제자인 밀의 윤리 사상을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한다.

**|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 벤담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고통과 쾌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다. 한편으로는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또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두 주인의 왕좌에 고정되어 있다. 이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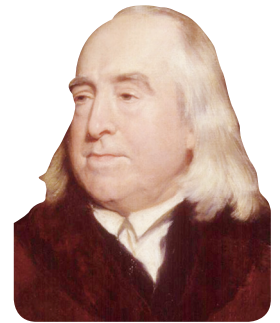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

벤담에 따르면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려 준다. 즉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행위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다.



### 공리주의의 등장 배경

공리주의는 고대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주의와 근대 경험론을 계승하여 성립한 사상이다. 18세기의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유 경쟁과 개인의 이윤 추구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부 격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리주의는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벤담(Bentham, J., 1748~1832)

이러한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벤담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功利)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공리란 유용성을 의미하며, 벤담이 말하는 유용성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그는 사회란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쾌락은 사회 전체의 쾌락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쾌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5

공리의 원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의 결과인 쾌락과 고통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벤담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는 없으며, 오직 양적 차이만 있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을 양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강도, 지속성, 확실성, 신속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0



● 밀(Mill, J. S., 1806~1873)

**| 밀의 질적 공리주의 |** 밀은 벤담의 윤리 사상을 계승하고 수정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벤담과 마찬가지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쾌락, 즉 행복이라고 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벤담과 달리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쾌락을 계산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15

공리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과 마찬가지로 질도 고려하는 것이 보통인데, 유독 쾌락을 평가할 때만 반드시 양에 의존하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 밀, 『공리주의』-

**I 밀의 쾌락 구분**

- 높은 수준의 쾌락: 지성, 상상력, 도덕적 정서 등을 통한 쾌락
- 낮은 수준의 쾌락: 먹는 것, 성(性), 휴식 등을 통한 쾌락

밀은 쾌락에 있어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쾌락과 낮은 수준의 쾌락을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쾌락은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다량의 쾌락보다 훨씬 우월하다. 20

**인문 자료 읽기 벤담의 쾌락 계산법**

벤담은 일곱 가지 기준을 가지고 쾌락을 계산하였다. 이는 쾌락이 사람의 행복을 더해 주고, 고통이 행복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는 강도가 강할수록, 지속성이 길수록, 확실성이 높을수록, 가까운 시일 안에 경험할 수 있을수록(신속성), 다른 쾌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수록(다산성), 고통이 덜 섞여 있을수록(순수성), 그리고 그 쾌락을 느끼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범위)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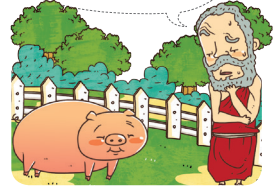
또한 밀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쾌락의 질적 차이를 분별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의 쾌락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은 정신적 쾌락이 더 우월한 쾌락임을 알기 때문에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고자 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5 밀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느끼는 쾌락도 질적으로 높은 쾌락에 포함된다고 보고, 자신의 쾌락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쾌락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밀은 타인의 행복까지도 실현되기를 원하는 이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10 벤담과 밀의 고전적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핵심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문제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을 선택하라고 함으로써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

15 하지만 고전적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적 동기나 과정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함으로써 행복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또한 쾌락이나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소수자의 인권 침해는 옳지 않다.’라는 우리의 상식적인 도덕에 어긋나는 역직관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 밀, 『공리주의』 -



**질문**

Q 공리주의는 개인이 공익을 침해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벤담은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가 공익을 해칠 것을 우려하여 물리적,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제재와 같은 네 가지 제재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은 처벌과 같은 외적인 제재와 양심의 후회와 같은 내적인 제재를 주장하였습니다.

**탐구와 성찰**

**고전적 공리주의의 문제점**

**>> 사상의 관점 성찰하기**

● (가), (나)를 읽고, 각각에서 알 수 있는 고전적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찾아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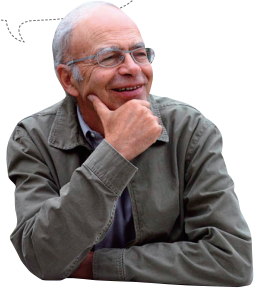
- (가) 벤담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빈원을 세워 ‘극빈자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거리에서 거지를 줄일 목적으로 나왔다. 벤담은 거지와 마주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행복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마음의 부담감이라는 고통이, 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혐오감이라는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거지와 마주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공리가 줄어든다. 따라서 벤담은 거지를 구빈원으로 몰아넣자고 제안했다. -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
- (나) ‘최대 다수’와 ‘최대 이익’을 어떻게 어떤 항목을 가지고 누구를 중심으로 측정할 것이며, 그 측정의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는 것은 난문제 중의 난문제이다. 오늘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것이 후손에게는 나쁜 것일 수 있고, 지금 다수의 서울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같은 시각 여타 지방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 백종현, 『윤리 개념의 형성』 -

- (가): \_\_\_\_\_
- (나): \_\_\_\_\_





모든 개체의 선호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해



● 싱어(Singer, P., 1946~현재)

**선호(選好)**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하는 것

**행위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를 모든 개별적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고전적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적인 특징을 지닌다.

**실천 윤리학**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학문 분야이다.

**현대 공리주의**

벤담과 밀로 대표되는 고전적 공리주의는 오늘날 현대 공리주의가 형성되는 토대가 되었다. 현대 공리주의는 고전적 공리주의의 원리를 계승하면서도 고전적 공리주의의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현대 공리주의로 선호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를 들 수 있다.

선호 공리주의는 행복을 쾌락으로 한정된 고전적 공리주의와는 달리 조금 더 포괄적 의미인 선호라는 개념을 통해 행복을 설명한다. 즉 선호 공리주의는 선택할 수 있는 행위 중 그 행위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의 선호를 가장 많이 만족하게 해 주는 행위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선호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싱어는 선호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감각을 지닌 개체의 선호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진 개체가 자신의 선호를 추구하는 것은 각 개체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규칙 공리주의는 개별적 행위의 결과를 따지는 행위 공리주의와 달리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큰 규칙을 따름으로써 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는 행위 공리주의의 문제인 결과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과 역직관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진실을 말하라.’ 혹은 ‘해악을 끼치지 마라.’와 같은 어떤 행위의 규칙이 공리의 원리에 비추어 옳다고 판단되면, 각 개인은 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의 결과를 계산해야 하는 행위 공리주의에 비해 확실히 경제적이다. 또한 채택된 규칙은 우리 사회의 전통이나 직관과 상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이 현대 공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즉 인간의 행복뿐만 아니라 감각을 지닌 동물의 행복까지도 도덕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 공리주의는 실천 윤리학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즉 공리주의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행위 규칙을 도출하여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사회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4

**△△로 확인**

- ① 벤담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리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O, X)
- ② 밀은 행위를 평가할 때에는 쾌락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 X)
- ③ 행위 공리주의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규칙을 따를 것을 강조한다. (O, X)

